“학업·꿈 포기 않도록”…장흥군, 청소년 돌봄 ‘호평’

월드비전 협약…맞춤형 사업
‘생계·돌봄·미래 준비’ 등 지원
“일상과 정서에 긍정적 변화”

장흥군이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의 학업과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고 있다.

단순 현금성 지원에서 더 나아가 돌봄과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9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와 함께 추진 중인 ‘Fill Care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사업’의 2025년 중간점검을 실시했다.

군은 이번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따뜻한 반응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Fill Care’는 가족 내 돌봄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학업과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맞춤형 통합복지사업이다.

사업은 크게 생계·돌봄·미래 준비의 세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군은 지난 5월9일 월드비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올해 청소년 6명과 청년 7명 등 총 13명을 대상자로 선정해 1인당 200만원씩 총 2천600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생활비, 의료비, 학원비, 자격증 준비 등 각 가정의 현실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됐으며, 태블릿PC 등 미래 준비를 위한 물품도 함께 제공됐다.

중간점검 결과, 이번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도움을 넘어 대상자들의 일상과 정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그동안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던 청소년, 청년들이 비로소 ‘나 자신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감정을 회복하고, 자기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지원 받은 한 청소년은 “그동안 저와 동생들 학원비를 벌기 위해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몸은 힘들어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지원으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든든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족의 상황을 이해 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느끼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용기도 생겼다”고 덧붙였다.

김성 장흥군수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뒤로 미루며 살아온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흥=노형록 기자

정철원 담양군수(왼쪽서 두 번째)가 최근 페이스튼 담양캠퍼스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담양군 제공〉

페이스튼 담양캠퍼스 개교 준비 본격화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페이스튼 프리페라토리 오브 담양(페이스튼 담양캠퍼스) 건물 신축공사가 지난 달 25일 시작되면서 내년 8월 초등과정 개교를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19일 담양군에 따르면 정철원 군수는 전날 학교 신축 현장을 방문해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건축자재와 장비 사용 시 지역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군수는 “페이스튼 담양캠퍼스 개교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학교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다니엘 팩시디스 페이스튼국제학원㈜ 교장은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담양군 발전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페이스튼 담양캠퍼스는 7월18일부터 학년별 30명씩 총 150명 규모로 1학년에서 5학년 초등과정 신입생 입학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약 140여건의 상담과 예약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9월까지 등록한 학생들에게 3년간 학비의 20%를 지원하고, 담양군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게는 모집 인원의 2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는 입학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페이스튼 담양캠퍼스 홈페이지에서 입학 문의 및 상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군, 광복 뿌리 세운 ‘8월 인물’ 재조명

노사 기정진·송사 기우만·성재 기삼연

장성군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8월의 장성역사인물’로 노사 기정진, 송사 기우만, 성재 기삼연 선생을 선정했다.

19일 장성군에 따르면 노사 기정진 선생(1798-1879)은 1866년 병인양요 당시 ‘나라 안에서는 정치를 제대로 하고, 나라 밖 외적은 반드시 물리쳐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리며 민족정신을 드높였다.

그가 학문을 강론하던 담대헌은 1924년 후손들에 의해 고산서원(진원면 고산리)으로 중건돼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손자인 송사 기우만 선생(1846-1916)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에 항거해 모인 13개 고을 의병들의 추대로 대장이 됐다.

이후 장성 진원면에 삼산재를 짓고 학문에 전념했으며, 54권 26책 규모의 ‘송사집’을 남겼다. 고산서원에는 조부 기정진 선생과 함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백마장군’ 성재 기삼연 선생(1851-1908)은 1905년 군대 해산 이후 호남 의병을 규합해 ‘호남창의회맹소’를 조직했다.

장성·고창·영광 일대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다 1908년 일본군에 체포돼 광주 서천교 아래에서 순국했다.

현재 장성읍 장성공원에 세워진 ‘호남창의영수 기삼연 선생 순국비’는 주요 기념식 때마다 참배와 묵념의 장소가 되고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세 분 선생의 발자취가 광복의 뿌리가 됐다”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5만 군민과 함께 호국과 애국의 마음을 되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 3월 ‘조림왕’ 임종국 선생을 시작으로 매월 지역 역사인물을 선정해 기리고 있다.

5월에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김동수 열사를 조명했으며 9월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에 현액된 조선시대 성리학자 하서 김인후 선생을 선정할 계획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순천 원도심서 전국 규모 ‘AI 게임잼’ 열린다

내달 26-28일 총상금 2천만원

순천시가 AI 기술을 결합한 전국 규모의 게임잼 행사를 개최한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원도심 클러스터에 입주 예정인 게임 특화 종합 콘텐츠기업인 ㈜디오리진과 협업해 추진한다.

게임잼이란 게임 제작사·대학교·기관 등에서 주최, 제한 시간 내 참가자들 간 팀을 이뤄 주제에 맞는 아이디어를 모아 게임을 개발하는 행사다.

순천시는 AI 기술과 결합한 게임 개발이라는 차별화를 내세워 ‘AI로 상상을 현실로’라는 슬로건 아래 총상금 2천만원을 걸고 전국 최대 규모의 게임잼을 운영한다.

행사는 다음 달 26-28일 2박3일간 진행되며 장소는 원도심 순천글로벌웹툰센터다.

게임 개발 주제는 순천과 연관된 소재로 행사 당일 공개되며 기획자, 프로그래머, 디자이너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제에 걸맞은 창의적인 게임을 개발하게 된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게임 콘텐츠는 ‘2025 글로벌 콘텐츠 페스티벌 in 순천(올텐가)’ 기간(10월17-19일) 동안 체험할 수 있다.

17세 이상의 게임 개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 신청이 가능하며 100명의 참가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행사가 원도심 클러스터의 기능을 살려 게임 산업을 비롯한 새로운 문화산업의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

고흥군 ‘녹동 바다정원’서 고향사랑기부 홍보

고흥군은 “최근 매주 대규모 드론쇼로 각광받고 있는 녹동 바다정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장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부스를 찾은 방문객에게 제도 취지와 참여 방법,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 고흥군 답례품 안내 등을 1대1로 상세히 설명했다. 또 안내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장 상담을 병행하며 기부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사진〉

고흥군 관계자는 “휴식과 여가를 즐기러 오신 분들이 고흥의 미래를 키우는 기부에도 자연스럽게 동참하실 수 있도록 현장형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관광지와 축제와 연계한 홍보를 이어가며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민간 기부 플랫폼 ‘위기브(WEGIVE)’와 협력해 전국 단위 온라인 이벤트를 31일까지 진행 중이다. 10만원 이상 기부자에게는 답례품 외에 ‘배스킨라빈스 파인트 모바일 쿠폰(9천800원 상당)’을 추가로 제공해 기부와 함께 실질적인 혜택을 원하는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박현진 기자

광양시-포스코 노조, 민생쿠폰 캠페인 성료

전통시장 장보기·아동센터 지원

광양시와 포스코노동조합 광양시지부는 최근 중마시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촉진 캠페인 및 물품전달식’을 가졌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양시와 포스코노동조합 광양시지부, 사랑나눔복지재단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전달식에서는 포스코노동조합 광양시지부가 구매한 450만원 상당의 식자재 등이 사랑나눔복지재단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18곳에 전달됐으며, 행사 후 참석자들은 중마시장 일대에서 장보기와 소비촉진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 동참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이번 캠페인이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역경제 회복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인화(가운데) 광양시장과 신재호 포스코노동조합 광양시지부장이 최근 중마시장을 방문해 민생쿠폰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광양시 제공〉

신재호 포스코노동조합 광양시지부장은 “노동조합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지속적인 상생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광양=양홍렬 기자

여수시, 올해 주민세 51억 부과

여수시는 19일 “올해 주민세 총 51억원(개인분 13억원, 사업소분 38억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까지”라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1일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천원이다.

사업소분은 7월1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금 등에 따른 기본세율(5만-20만원)과 330㎡ 초과 사업소 연면적 세율(1㎡당 250원)이 합산돼 산정된다.

여수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다음 달 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 없이 신고·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단 납부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여수시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계좌 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여수=김진선 기자

구례군,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폭언·폭행 상황 가정

구례군은 “최근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발생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민원 현장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위협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의 안전 확보와 현장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군·읍면 민원담당 직원과 구례읍 파출소 경찰관이 함께 참여했다. 〈사진〉

훈련은 발급 시도만으로도 형사고발 대상이 되는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주요 대응절차는 ▲민원인 진정 유도 ▲사전 고지 후 녹음·녹화 ▲비상벨 호출 ▲피해 공무원 보호 및 민원인 대피 ▲특이민원인 제압 후 경찰 인계 순으로 이뤄졌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민원실은 군민 누구나 찾는 공간인 만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직원들이 비상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